福音新聞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재일대한기독교회 / 일본그리스도교회

2014 년 평화에 대한 공동성명

선교협약으로 맺어진 우리 양 교회는 성경적 신앙양심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아베 신조총리와 일본 정부에 강하게 표명하고 요구합니다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장 6 절)

하나 ,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적에 대한 공포심과 증오를 부추기면서 군사대국으로서의 국가 형태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려는 정치사상에 따라 나라를 오도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노선에 신앙과 양심에 따라 단호하게 "아니오" 를 부르짖습니다 .

둘 ,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의 즉각 철회와 현행 평화헌법의 유지 ,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육체 욕망의 종착점은 싸움이며 ,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 진실한 생각은 사람과 사회를 생명과 평화로 인도합니다 .

셋 ,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고 주변국들을 도발하는 오늘날 정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

넷 , 우리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적 행동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를 통한 진실된 사죄와 공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

다섯 , 우리는 두 개가 적대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로 인도하는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적 입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증오 선동) 에 대하여 단호히 저항함은 물론이며 , 지난 7 월 24 일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일본 정부에게 그러한 폭력을 막기 위한 조속한 공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이러한 표명과 요구는 아래에 열거하는 역사적 경위와 사회적 사실과 우리 양 교회의 신앙적 실천을 바탕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

2014 년 7 월 1 일 ,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각의 결정 했습니다 . 역대 내각이 헌법 9 조에 저촉된다는 것을 이유로 금지 해 왔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의 전쟁에 참여한다" 는 군사행동을 이 일본이 행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이것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그리고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고 헌법 9 조에 명확하게 명시하면서도 자위를 위한 군대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 주변국들과 무력에 의한 직간접적인 마찰을 이어온 일본의 일그러진 군사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 일본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국 "전쟁에 군사력으로 가담 할 수 있는 나라" 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각의 결정의 전문에는 이 결정의 배경으로 "냉전 종결 후 4 반세기 만을 제외하고라도 글로벌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 ,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 및 확산 , 국제 테러 등의 위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문제와 긴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 합니다 . 그러나 이 "문제와 긴장"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긴장관계 심화에 대한 책임의 일단은 분명히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 도 함께 자각해야 합니다 . 평화와 분쟁의 어느 쪽도 결코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지난해 12 월 26 일에 있었던 아베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비롯하여 현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이며 , 현재에도 과거 아시아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미화하는 생각을 유포하는 "성전" (聖戰) 사상의 본거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는 전사자의 신앙과 신조를 무시하며 , 강제적으로 전쟁에 동원 된 피식민지 지배민족 출신의 전사자들도 성전에 목숨을 바친 영령으로 문답무용 (問答無用) 으로 모시고 있으며 , 심지어 전쟁 책임자로 "극동 재판" 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도 영령으로 모셔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의 공식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걸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천황제 국가신도가 가져온 역사적 비극에 대한 반성을 망각하고 , 헌법 20 조에 각인된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과 중국이 반복하여 "참배 자제" 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마치 주변국을 도발하는 것처럼 굳이 참배를 하고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부 관계자들의 자세가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또한 1993 년 미야자와 내각 당시에 나온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한 "코노담화" (河野談話) 의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제 1 차 아베내각은 2007 년 3 월 ,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것과 같은 기술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였으며 , 현재 제 2 차 아베 내각은 올해 3 월 코노담화의 "검증" 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 결과 , 코노담화 발표 당시에 피해자 여성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담화 작성에 있어서 한일간에 내용 조정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발표하고 코노담화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공식견해로서의 가치를 무형지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것도 전쟁책임을 망각하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행동으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6 면으로 이어짐)

지난 몇 년간 고조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문제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여전히 증오에 찬 차별발언이 대음량으로 흘뿌려지고 있으며, 이것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언론의 자유가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언론계에서는 선정적(煽情的)인 嫌中憎韓(혐중증한) 붐이 확실하게 퍼지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듣기에도 민망한 차별 언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중에서 오랫동안 차별 금지법 제정과 국내 인권기관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무회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따를 의무 없음 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일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이 글로벌 시대에 각 지역사회에서 일본인도 외국인도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다문화 공생의 마을 만들기의 기운과 구상이 방치되는 헤이트스피치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동북아 국가에 알려졌으며, 이 또한 국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일본은 결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제와 긴장의 피해자도 방관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와 긴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당사국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 받을 위험 만을 강조한 이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도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분명히 금지 된 전쟁과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폭거이며, 헌법 9조의 이념을 해석 개헌에 의해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헌법 9조를 지양하는 일본에 대한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심하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회는 15년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군국주의적인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갔던 일본 정부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침범 당하여, 궁성요배(宮城遥拝)와 신사참배를 강요 받았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의 주권이 아니라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는 국위 선양과 전쟁 수행에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같은 스스로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길이었던 전쟁이 가져온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비극을 깊이 마음에 새김과 더불어 과거 침략전쟁의 도구로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성 노예가 되었던 분들의 문제를 전후 오랫동안 간과해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를 때, 지금까지 각각의 생각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도 사죄와 수용이 주어져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 교회는 적의라는 막힌 담을 헐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화해와 교제를 부여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정치적 선전에 의해 적의를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대국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생명과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의 생각이 충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동북 아시아 땅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2014년 8월 15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중래
일본그리스도교회 총회의장 다카마쓰마키토(高松牧人)

<관동지방회> 동지구 교회 제19회 한일교회 교류회

매년 6월에 일본 기독교단 동경 교구의 동지구와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에 소속 된 여섯 교회의 공동 주최로 〈한일 교회 교류회〉가 열리고 있다.

매년 장소는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6월 22일(주일) 오후에 교단의 후지미쬬교회(富士見町教会)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합동예배는 장경태목사(동경성민교회)의 사회로 정유성목사(동경동부교회)가 한국어로 성경을 낭독한 후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참가 목사들에 의한 남성 중창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한성현목사(니시아라이교회)가 사도행전 1:8-11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며,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그 시기는 인간들이 알 수 없지만, 임박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는 것, 동요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사역할 것,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양 교회가 앞으로도 일본 땅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갈 것" 을 힘 있게 전했다. 이어서 후지미쬬교회의 후지모리유키목사(藤盛勇紀)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한국의 서울 신학대학의 카리스쿠와이어(신은석교수 지휘)에 의한 은혜로운 특별 찬양에 모두가 감동에 휩싸였다. 이 예배에서의 헌금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미자립교회를 위해 드려졌으며, 김동수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는 1층 집회실에서 이어졌는데 양 교회로부터의 인사와 소개가 있었다. 양 교회의 참가자는 약 110명 정도였지만 매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됨에 감사 드린다.

(보고 : 니시아라이교회, 한성현목사)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ＹＭＣＡ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YMCA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Ｙ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ＹＭＣＡ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ＹＭＣＡ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관서지방회>
제 43 회 아슈람 기도수양회

관서지방회 전도부가 주최하는 〈제 43 회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지난 5 월 12 일과 13 일에 〈동지사 비와호 리트리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딤전 4:5) 였는데, 관서지방회 전 교회 목사와 교인 및 한국의 포항중앙교회 교인을 포함하여 108 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기도회는 서임중목사 (포항중앙교회) 를 강사로, 송남현 목사의 진행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기도와 찬양, 반주, 통역, 안내 등으로 은혜롭게 진행하였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김필순목사 (사카이교회) 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눅 5:15-16)"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서임중목사가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라" (마 16:21-24) 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이어서 간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 후에 서목사는 "통감 (通鑑) 의 지혜로 살아가자" (삼상 12:14-18)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였으며, 참가자 전원이 분단으로 나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다음날 아침기도회는 김무사목사 (오사카니시나리교회) 가 "중[illegible]의 기도" (엡 6:18-19)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야외에서 묵상을 하였다. 아침식사 후에는 서임중목사의 마지막 강의가 있었으며, 1 박 2 일 동안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충만의 시간도 있었다.

폐회예배는 조영철목사 (오오사카북부교회) 가 "말씀과 기도와 사명" (딤전 4:5)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므로 아슈람기도회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점심식사 후에 참가자들은 아슈람 기도수양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 교회로 향하였다. 그 동안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서지방회의 각 교회가 아슈람 기도수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와 말씀묵상에 전념하기를 소망한다.

(보고 : 송남현 목사)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제 1 회 청년의 모임 개최

교회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의 공통된 소원은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을 계승하여 기독교인 가정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전국 여성회 주최로 〈제 1 회 청년의 모임〉(신도위원회 전국 장로회 청년회 전국 협의회 후원) 인 Gospel in Kobe de Night 가 지난 7 월 19 일 (토) 에 전망이 좋은 코베 시청 24 층에서 개최되었다.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고를 해 왔지만 과연 청년들이 모일 것인지 매우 불안하였지만 신청마감 직전에 신청이 잇따라, 34 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총 42 명).

이 모임은 1 부가 바이블 타임, 2 부는 파티 타임이었으며, 강사는 타니모토 (谷本仰) 목사 (미나미코쿠라 침례교회) 였다. 관동과 서남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처음 매우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음악 치료사, 대학 강사, 노숙자 지원, 가정에서는 5 명의 아이의 아버지라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타니모토목사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인하여 점차 분위기가 물어 익어 갔다.

이어진 파티 타임은 청년들이 사회 진행을 맡았으며, 게임과 청년의 밴드 연주, 자유 토크 시간이 주어졌다. 날이 저물어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음색이 분위기를 띄웠다.

일정을 마친 후, "또 이러한 기획을 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비교적 가스펠이 적었다", "분명한 목적을 잘 몰랐다" 는 등의 목소리들이 들렸다. 첫 모임이라서 반성 할 점들은 많이 있지만, 뚜렷한 것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교제의 장소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해 주신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보고 : 박영자)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도잔소 회의로부터 30년 후>
오래간만에 북한 교회와의 만남

〈한반도의 정의 평화 화해에 관한 국제협의회〉

오래간만에 북한 교회와의 만남이 지난 6월 17일 -19일에 스위스 제네바 보세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2012년 1월에 작고한 고(故) 강영섭 조선 그리스도교련맹 (조그련) 위원장 이후에 현재 위원장인 강명철목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였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 측에서는 조그련의 강명철위원장과 리정로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 인사들을 비롯하여 15개국 55명의 교회 및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재일대한기독교 대표로는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도잔소회의 30주년(東山荘会議30周年)〉을 기념하는 예배와 성만찬, 세미나,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계 교회가 매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할 것을 제안하는 선언문도 채택되었다.

조그련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 행사에 참석한 강명철 목사는 "다양한 국가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본다" 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진 후에 선언문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과 여성들이 전쟁 기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으며 진정한 평화는 여성들의 참여와 헌신 없이 실현될 수 없다" 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병호총간사는 그 동안 매년 8월 둘째 주일에 실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주일헌금 중에 1만 달러를 조그련에 전달하였으며, '우리끼리' '우리말' 로 가진 비공식 자리에서는 "최근 굳어져 있는 북한과 일본관계가 풀리는 조짐이 있다. 그러므로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 삼일절을 전후로 동경에서 남북교회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는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더불어 오는 9월 말에 있을 본국 선교협약 7교단 협의회에서 함께 협의하자고 합의하였다. (보고 : 편집부)

〈소천〉 金桂昊牧師 (名古屋南教会引退牧師) 召天

김계호목사 (나고야 미나미교회 은퇴목사, 향년 81세) 가 지난 7월 5일 미국에서 소천하였습니다. 김목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시나가와교회, 기후교회, 나고야미나미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본 총회의 사회위원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후쿠오카교회 담임목사 청빙

1. 자격
   1) 서류제출 시에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된 목사 및 선교사
   2) 연령 : 약 35 ~ 55세
   3) 목회경력 : 10년 이상
   4) 한국어와 일본어가 능통하신 분
2. 제출서류
   1) 이력서와 질문서 : 각 1부
   2) 목사 안수증명서 : 1부 (총회에서 안수를 받지 않은 경우)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와 논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각 1부
   4) 사역 (출석) 교회 주보 : 1개월 분
   5) 사진 : 가족, 사역내용 등 여러 장 가능합니다.
3. 제출 기간 : 2014년 9월 7일 ~10월 10일
   ※주의사항
   1) 제출 서류는 본 교회에서 작성한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후쿠오카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http://www.fukuokachurch.org/indexk.htm
   2)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서류접수 및 문의
   〒812-0044 福岡市博多区千代 5-11-48
   福岡教会 牧師招聘委員会
   ※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chungbing14@gmail.com
5. 기타
   -. 청빙서류 발송 후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라고 기재 바랍니다.
   -. 결과는 개별통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후쿠오까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주소변경〉**(住所変更)**

・折尾教会 ☎・FAX 093 (202 − 7131)

〒807-0001 福岡県遠賀郡水巻町猪熊 3-2-16

・金漢羅牧師

〒203-0013 東京都東久留米市新川町 2-7-5 サンペルテ 107

〈정정과 사과〉 (訂正とお詫び)

동경성민교회 (7월호 4면 한국어 기사) 합병식과 명예권사 추대식 기사 중에서 타이틀인 〈장로장립식 / 명예권사 추대식〉 을 〈합병식 / 명예목사 추대식〉 으로 정정하며 사과 드립니다. - 편집부 -